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

김 동 진* · 김 지 훈**

【요약문】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조사하고, 교사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INFE 도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교사의 응답 251부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83.07점이었으며, 금융지식은 87.19점, 금융행위는 88.27점, 금융태도는 67.92점으로 나타나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은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교사의 특성별로 금융이해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높은 금융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이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관련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교사들의 금융이해력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과 우수 수업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이해력 관련 재교육 연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금융교육

* 제1저자, 데이터드라이브 책임연구원, 경인교대 강사(dj.kim@datadriven.kr).

** 교신저자, 서울대길초등학교 교사(kjh4469@snu.ac.kr).

I. 서론

한국은행(2021)의 가계신용에 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액은 1700조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10.3% 증가한 수치이다. 가계대출 금액의 증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 혹은 부동산을 산다)’, ‘빚투(빚을 내어 투자를 한다)’와 같은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 열풍과 관련된다. 금융 자산 투자 열풍과 더불어 주식, 채권, 펀드, 선물, ELS, ETF,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등장하였다. 또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개인은 자신의 신용 조건에 따라 금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금융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은 증가하였다.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으로 금융 의사결정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결국,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증가 및 의사결정 기간의 연장에 따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이해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 학업성취도평가프로그램인 PISA는 수학, 읽기, 과학에 더해 2012년 선택 영역으로 금융이해력 평가 영역을 신설하였다(오영수, 2015). 아울러 전 세계 여러 나라는 개인의 금융이해력 함양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성경희·박은아, 2017).

OECD(2014)에 의하면 금융이해력은 다양한 금융 관련 맥락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과 사회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증진하며,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융 관련 개념 및 위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skills), 동기(motivation), 자신감(confidence)으로 정의된다(Lusardi, 2015).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이해력은 단순한 금융지식에 대한 습득 정도를 넘어서서 그 지식을 적용하고, 나아가 금융에 대한 태도까지 포괄한다. 또한, 금융이해력은 개인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 또는 시민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민들이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 금융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때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이해력은 재무관리 등 개인적 이익의 목적을 넘어 민주시민성 발달의 시민교육 맥락 속에서 21세기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조지민 외, 2014; 최윤정·김예지, 2015).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이해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 연구는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초·중·고 학생 금융이해력 연구(김은정·문정숙, 2010; 오영수·곽영일, 2015; 천규승·김술, 2016; 한진수, 2013 등),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김미리·김시월, 2011; 이운호, 2015 등)가 있다. 이 연구들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함양에 금융교육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다(김은정·문정숙, 2010; 이운호, 2015).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함양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은숙·정신섭(2017), Deng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교육 및 금융교육의 효과와 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 지식의 전문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교사 지식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융교육의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교사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사 금융이해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다만, 교사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 외에 교사 경제이해력에 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다(김진영 외, 2004; 장경호 외, 2008; 한진수, 2002 등). 교사 경제이해력에 관한 연구들은 미시, 거시, 국제 경제 등에 대한 교사의 경제 지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지식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서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교사를 포함해 교사 금융이해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진수(2021)의 연구가 유일하다. 한진수(2021)의 연구는 예비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에서 예비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교사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고자 한다. 금융이해력이 단순히 금융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역량으로 대두되고,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역인 만큼(성경희·박은아, 2017)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하는 것은 초등학교 금융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Hung et al.(2009)에 의하면 금융이해력은 (a) 지식의 특정한 형태, (b)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기능, (c) 인지된 지식 (d) 올바른 금융 행위, (e) 금융 경험으로 정의 되어왔다. 미국의 대통령 금융이해력 자문 위원회(The 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 PACEL)는 Jump\$tart의 정의를 바탕으로 금융이해력을 금융복지를 위해 생애 전반에 걸쳐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합의된 정의를 제공한 바 있다(Hung et al., 2009). 한편, OECD(2014)에서는 금융이해력을 다양한 금융 관련 맥락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과 사회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증진하며,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융 관련 개념 및 위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skills), 동기(motivation), 자신감(confidence)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협의의 금융이해력은 금융 관련 지식, 적용 능력 또는 기능을 의미한다(이운호 · 문세영, 2020). 광의의 금융이해력은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이라고도 불리고, 이는 금융지식,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로 구성된다(김정현 · 최현자, 2011). 이때의 금융이해력은 개인적 수준에서 나아가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금융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이태준 외, 2017). 결국, 과거의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이나 지식의 적용이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정의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식에서 경험 또는 행위, 태도로의 확장성을 보였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금융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Lusardi(2015)는 금융이해력의 의미 확대를 4가지 특징으로 설명한다. 첫째, 금융이해력은 단순히 지식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금융 의사결정 촉진이라는 목적을 지닌다. 둘째, 금융이해력의 목적은 저축이나 대출의 감소와 같은 개인의 금융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반적인 금융복지를 증진시킨다. 셋째, 금융이해력은 개인적 차원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효과도 고려한다. 넷째, 금융이해력은 읽기, 쓰기, 과학 지식과 같이 사람들을 경제적 삶에 참여시킨다.

결과적으로 금융이해력 향상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을 의미하고,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OECD/INFE(2020)에 의하면 금융이해력은 <표 1>과 같이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로 구성된다. 금융지식은 개인이 금융 상품이나 자신의 재무관리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금융에 대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금 계산, 단리, 복리 계산 등의 수리적 능력을 의미한다(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OECD, INFE, 2020). 금융행위는 개인이 금융복지를 지속하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 행동으로 자신의 재무 계획과 관리,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등을 의미한다(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OECD, INFE, 2020). 금융태도는 개인이 금융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로 저축과 소비에 대한 선호, 돈에 대한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 등을 의미한다(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OECD, INFE, 2020).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금융지식과 더불어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표 1> OECD/INFE 금융이해력 구성 항목

구분	세부 내용
금융지식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이자 개념의 이해, 단리/복리 계산, 인플레이션의 의미, 분산투자 개념, 위험과 수익 관계
금융행위	가계예산 관리, 적극적인 저축활동, 신중한 구매, 청구대금 적기 지급, 평소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가계수지 적자 해소
금융태도	저축보다 소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선호, 돈은 쓰기 위해 존재

자료: OECD, INFE(2020). pp. 86-89

전반적으로 낮은 금융이해력은 사람들의 저축과 노후 대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금융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노인을 포함한 사회 소외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한진수, 2017; Lusardi, 2008). 따라서,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금융교육은 필요하다. 한편,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조사한 Pe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이 높은 투자 지식을 갖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교육과 사회적 선호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McCannon(2014)에 의하면 금융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공동체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덜 일어나고, 사회적 선호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금융교육의 효과는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김은정·문정숙(2010)의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호(201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금융 교육이 대학생 시기의 금융이해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금융교육의 효과성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금융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재무 안정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질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은 개인의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성, 체제 유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금융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함양은 교사의 금융이해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선행연구들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경제교육 또는 금융교육의 효과가 보장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경제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은숙·정신섭(2017)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교육 내용에 대해 능통하게 알고 있을수록 경제교육의 효과성은 높아진다. 금융교육에서 교사의 영향에 대한 Deng et al.(2013)의 연구에서 역시 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의 효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들 연구와 같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금융교육에서 내용교수지식(PCK)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약 금융이해력을 실천하는 교사가 높은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학교 금융교육의 효과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교사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함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교사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INFE 가이드라인의 질문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2.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어린 시절의 금융이해력은 금융에 대한 태도와 인식 면에서 습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금융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합리적 금융 습관을 형성하기에 너무 늦다(오영수, 2015).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에 따라 금융교육의 기회를 불균등하게 가지게 되면서 금융이해력 격차는 더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한진수, 2017).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효과성의 측면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금융교육을 위해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이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드문 편이다.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과 유사한 연구는 초등교사의 경제 지식에 관한 한진수(2002)의 연구와 예비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한 한진수(2021)의 연구가 있다. 한진수(2002)는 금융이해력 개념이 대두되기 이전에 초등교사의 경제 지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TEL(Test of Economic Literacy)을 활용하여 초등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경제 지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교사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초등교사들은 무역, 이윤, 경쟁, 정부의 역할, 국내총생산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진수(2021)의 연구에서는 경제이해력에서 나아가 대학생인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TFL(Test of Financial Literacy)을 활용한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예비 초등교사들은 소득, 소비, 저축 영역에서는 높은 이해도를 보였지만, 신용, 투자, 보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실업 급여의 혼동, 채권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바 있다(Deng et al., 2013; Henning and Lucey, 2017; Sasser et al., 2010). Deng et al.(2013)은 타이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금융이해력의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서 금융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Sasser et al.(2010)은 오클라호마 K-12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에 대한 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교사 금융이해력 형성에는 과거 금융교육 수업 경험, 대학에서의 경제학 수업 수강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Henning and Lucey(2017)는 초등교육에서의 예비교사와 교사교육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들은 초등

학교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States) 경제학 표준 또는 JumpStart 표준을 활용할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초등교사 금융이해력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의 금융이해력 함양을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 금융이해력의 형성 요인으로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 대학에서의 경제 및 금융 강의 수강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체제에서 초등교사의 경우 여러 교과 수업을 실천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실천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교사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 수준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교사 배경 변인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금융이해력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금융이해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어떠하며, 교사의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되는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평생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금융교육에서 교사가 가

진 금융이해력은 금융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의 객관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출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경비 및 일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초등교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교사가 가진 금융이해력 수준을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docs.google.com/forms) 방식을 통해 2021년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실시되었다. 초등교사 26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성격의 집단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사 연구회 활동과 금융이해력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설문 문항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 배포 대상에 경제·금융교육 연구회 소속 초등교사를 포함하였고, 설문 응답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초등교사들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특성

구분	항목	사례수(명)	비율(%)
성별	여자	170	67.7
	남자	81	32.3
지역	읍면지역	33	13.1
	중소도시	61	24.3
	대도시	84	33.5
	특별시	73	29.1
담당 학년	1~2학년	54	21.5
	3~4학년	74	29.5
	5~6학년	123	49.0

구분	항목	사례수(명)	비율(%)
교직 경력	5년 미만	52	20.7
	5년 이상~10년 미만	110	43.8
	10년 이상~15년 미만	41	16.3
	20년 이상	48	19.1
최종 학력	학사	160	63.7
	석사	89	35.5
	박사	2	0.8

3. 자료 수집

금융이해력을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존 도구로는 OECD/INFE에서 전 세계 성인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평가·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OECD, INFE, 2020), OECD/INFE 도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함께 실시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활용하는 도구(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에서 개발한 학생용 금융이해력 검사 도구(Walstad and Rebeck, 2016), 미국 Jump\$tart의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Mandell, 2008) 등이 대표적이며,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조합하거나 측정 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김성숙, 2014)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OECD/INFE 조사 도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OECD/INFE가 제시한 세부 지침(OECD, INFE, 2018)에 따라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 핵심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고). 이 도구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 성인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할 때 활용되는 도구이다. 또한, 이미 기존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상당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상은, 2020; 한진수, 2016). 따라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조사 도구 구성

영역	내용	배점	채점 기준	
금융 이해력	금융 지식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정답: 1점, 그 외: 0점
		이자 개념의 이해	1	
		단리 계산	1	
		복리 계산	1	
		인플레이션의 의미	1	
		분산투자 개념	1	
		위험과 수익 관계	1	
	금융 행위	가계예산 관리	1	가계예산 관리: 1점
		적극적인 저축활동	1	저축경험 있음: 1점, 그 외: 0점
		신중한 구매	1	매우 동의, 동의: 1점, 그 외: 0점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독자적 정보 이용: 2점, 비교·검토, 일반정보 이용: 1점
	가계수지 적자 해소	1	차입에 의존: 0점, 그 외: 1점	
	금융 태도	저축보다 소비 선호	1.67	매우 동의: 1점, 동의: 2점, 보통: 3점, 대체로 반대: 4점, 완전 반대: 5점
		미래보다 현재 선호	1.67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6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¹⁾의 문항을 기초로 온라인용 설문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초등교사 3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설문지²⁾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 1) 금융감독원의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도구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fss.or.kr/edu/notice/noticePoll1.jsp>)를 통해 공개되어 있어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수정·보완 사항은 설문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주관식 답변 방식에 대한 예시 추가(이자 개념 문항에서 답변 예시 추가), 용어 구체화(저축활동 문항에서 요구불예금 용어 구체화),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OECD/INFE 지침(OECD, INFE, 2018)에 따라 채점·계산하여 21점을 총점으로 한 금융이해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와 동일한 방식을 차용하여 각 부분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이해력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다(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고,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초등교사의 특성별 금융이해력 비교를 실시하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금융이해력과 관련이 있으며(이운호, 2018),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직 경력(한진수, 2002),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 수강 경험(한진수, 2021; Deng et al., 2013),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Sasser et al., 2010) 등이 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교사가 가진 특성을 교직 경력, 학력,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 수강 경험,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 경험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등교사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집단 수를 고려하여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는 SPSS 22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개요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금융이해력 전체 점수는 83.07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금융지식 87.19점, 금융행위 88.27점, 금융태도 67.92점으로 나타났다.

금융 맥락에서 혼란을 주는 일부 예시 삭제(저축활동 문항에서 ‘모국에서 송금하여 투자’, ‘가축’ 등의 예시 삭제) 등이 이루어졌다.

<표 4>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점수

영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금융이해력 전체	83.07	11.42	30.16	100.00
금융지식	87.19	16.40	14.29	100.00
금융행위	88.27	15.42	22.22	100.00
금융태도	67.92	18.40	20.00	100.0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금융감독원의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전체 평균점수가 66.8점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

초등교사 금융이해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교사 집단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금융이해력은 개인의 학력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교사의 평균적 학식 수준이 높은 것이 높은 금융이해력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등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초등교사들은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은 학식과 전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지식, 행위, 태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금융이해력은 실제 금융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정도와 관련이 깊다. 실제 초등교사는 일정 수준의 보장된 급여를 바탕으로 현재 소비와 미래 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서로의 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초등교사들은 실제 다양한 금융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금융이해력도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력 수준이 높은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전국민 금융이해력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2. 초등교사 특성별 금융이해력 차이

1)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

<표 5> 초등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영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금융이해력 전체	5년 미만	52	83.82	9.76	1.356	.257
	5년 이상~10년 미만	110	82.90	12.57		
	10년 이상~15년 미만	41	85.37	8.76		
	15년 이상	48	80.66	12.16		
금융 지식	5년 미만	52	85.99	14.28	.461	.710
	5년 이상~10년 미만	110	87.40	17.71		
	10년 이상~15년 미만	41	89.55	12.79		
	15년 이상	48	86.01	18.28		
금융 행위	5년 미만	52	89.96	14.30	.784	.504
	5년 이상~10년 미만	110	87.17	16.08		
	10년 이상~15년 미만	41	90.51	13.04		
	15년 이상	48	87.04	16.89		
금융 태도	5년 미만	52	69.74	15.98	2.381	.070
	5년 이상~10년 미만	110	68.91	19.27		
	10년 이상~15년 미만	41	70.24	15.28		
	15년 이상	48	61.67	20.33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교직 경력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 15년 이상의 초등교사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조사 대상 중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초등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해당 집단 교사들의 실제적인 금융 생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초등교사의 연령 범위는 만 31~43세(평균 만 36.29세)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대별 금융이해력에 관한 이운호(2018)의

연구에 의하면 30대부터 금융이해력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생애주기 중 30대가 소득의 창출과 저축, 그리고 재산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30대의 성인들은 금융 관련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금융에 대한 경험이 크게 확대된다. 본 연구에서 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집단의 초등교사가 가장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학력에 따른 차이

<표 6> 초등교사의 학력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금융이해력 전체	학사	160	82.54	11.76	-.966	.335
	석사 이상	91	83.99	10.81		
금융 지식	학사	160	87.05	16.79	-.180	.858
	석사 이상	91	87.44	15.77		
금융 행위	학사	160	87.22	16.49	-1.430	.154
	석사 이상	91	90.11	13.19		
금융 태도	학사	160	67.79	18.39	-.141	.888
	석사 이상	91	68.13	18.51		

초등교사의 학력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는 <표 6>과 같다. 연구 대상 중 박사 집단에 속하는 초등교사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석사 집단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초등교사가 학사 학력을 가진 초등교사에 비해 높은 금융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세부 영역인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모두에서 동일했다. 단,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초등교사의 학력이 높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교육을 더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차 학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지식, 금융이해력 관련 정보 습득, 금융이해력 관련 행동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학력은

개인의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이운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학사인 경우보다 석사 이상인 경우의 초등교사, 즉 학력이 높은 초등교사가 비교적 높은 금융이해력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에 따른 차이

<표 7> 초등교사의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금융이해력 전체	있음	68	86.32	9.05	2.791**	.006
	없음	183	81.86	11.99		
금융 지식	있음	68	87.39	14.50	.118	.906
	없음	183	87.12	17.08		
금융 행위	있음	68	92.65	11.46	2.779**	.006
	없음	183	86.64	16.38		
금융 태도	있음	68	73.43	17.79	2.939**	.004
	없음	183	65.87	18.25		

** $p < .01$

초등교사의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는 <표 7>과 같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금융이해력 전체뿐만 아니라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세부 영역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금융이해력 전체,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점수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및 금융 교육과 관련한 자발적인 연구회 활동이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교사의 경제교육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최병모 외, 2004)을 고려하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차이

<표 8> 초등교사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금융이해력 전체	있음	64	81.80	10.42	-1.029	.304
	없음	187	83.50	11.74		
금융 지식	있음	64	85.71	16.30	-.836	.404
	없음	187	87.70	16.44		
금융 행위	있음	64	87.33	16.07	-.566	.572
	없음	187	88.59	15.22		
금융 태도	있음	64	66.35	16.94	-.786	.433
	없음	187	68.45	18.89		

본 조사에서는 초등교사들에게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여부를 함께 물었다. 초등교사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는 <표 8>과 같다. 수강 경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이해력 전체 평균점수 및 세부 영역별 점수 모두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소폭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 시기에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 등에서 경험한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가 교사 금융이해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Sasser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강의가 교사의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력의 지속 기간이 교직 생활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은 바(김진영, 2006),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원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경제나 금융 관련 강의가 초임교사의 금융이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와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 재교육 현황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5)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

<표 9>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에 따른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금융이해력 전체	있음	85	86.26	8.54	3.226**	.001
	없음	166	81.43	12.36		
금융 지식	있음	85	89.58	14.35	1.655	.099
	없음	166	85.97	17.26		
금융 행위	있음	85	92.03	10.37	2.801**	.006
	없음	166	86.35	17.15		
금융 태도	있음	85	71.22	19.82	2.047*	.042
	없음	166	66.22	17.45		

** $p < .01$, * $p < .05$

본 조사에서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이란 최근 1년간 경제·금융교육과 관련한 수업 진행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및 범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포괄한다. 초등교사의 경제 또는 금융 관련 수업 진행 경험 여부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는 <표 9>와 같다. 수업 진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금융이해력 전체,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세부 영역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금융지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실제 수업 경험이 교사의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사는 매일의 수업 계획 및 실천과 수업에 대한 반성적 검토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간다는 점(모경환·박영석, 2004)에서 금융이해력 관련 실제 수업 경험은 교사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 경험

<표 10>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수준
금융이해력 전체	있음	63	85.74	8.71	2.164*	.031
	없음	188	82.17	12.09		
금융 지식	있음	63	87.53	13.93	.187	.852
	없음	188	87.08	17.17		
금융 행위	있음	63	92.77	11.83	2.711**	.007
	없음	188	86.76	16.19		
금융 태도	있음	63	70.58	19.07	1.331	.184
	없음	188	67.02	18.13		

** $p < .01$, * $p < .05$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을 관련 연수 경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수 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전체 점수와 금융행위 점수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관련 연수가 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는 교사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 실질적인 경제·금융교육 내용과 방법,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장경호·박형준 2018). 이러한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교사는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실천적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가 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교사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스스로 높은 금융이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251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은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 수업 진행 경험, 연수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은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의 자발적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인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 경험이 교사의 금융이해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이는 최근 교사의 전문성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학습공동체 운동(서경혜, 2013) 맥락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해 자율적인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제시한 김순희(2010), 최병모 외(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금융교육 관련 주제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금융교육에서도 교사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을 전제로 하는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공동탐구(collective inquiry)를 통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사의 학습이 교사 개인의 금융이해력 향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이해력 관련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 활성화, 자유로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진행 경험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금융교육의 실행 경험이 교사의 금융이해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Sasser et al.(2010)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 교사는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어떠한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접

검하고 보완하면서 교사 개인의 금융이해력이 증진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재인식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금융 관련 지식을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금융교육은 일방적 관계를 갖지 않고,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력 관련 수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융이해력 관련 우수 수업 사례 발굴과 공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 경험은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는 현직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맞춤형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경호·박형준(2018)의 연구에서 초등교사는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에 관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사들은 금융지식에 대한 자신의 요구에 따라 금융이해력 관련 연수를 경험한 후 자신에게 부족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초등교사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춘 실제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수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연수가 아닌 주기적인 연수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이해력 관련 재교육 기회 확대는 금융이해력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융교육의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확인하고, 초등교사의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이 초등교사 전체 집단의 금융이해력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대표성이 있는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조사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도구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및 국제비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초등교사가 가진 금융이해력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특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도구 외 다른 조사 도구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조사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양적 자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초등교사들이 금융교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사학 습공동체와 금융교육 실천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추후 초등 교사의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보다 심층 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한국은행(2021),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보도 자료(3.29).
- 김미리·김시월(201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2), 1-28.
- 김성숙(2014), 금융이해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금융이해력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경영경제*, 47(2), 177-202.
- 김순희(2010), 수업개선에 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연구-사회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탐색, *시민교육연구*, 42(1), 53-76.
- 김은숙·정신섭(2017), 청소년 경제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논총*, 19, 1-40.
- 김은정·문정숙(2010), 가정환경, 학생특성, 금융교육 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차이검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67-77.
- 김정현·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김진영(2006), 사범대학의 경제교육 내용 모색, *시민교육연구*, 38(1), 19-47.
- 김진영·김일태·조병철(2004),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소양 분석, *경제교육연구*, 11(2), 23-47.
- 모경환·박영석(2004),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 장학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3(1), 61-85.
- 박상은(2020),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탐색, *중등교육연구*, 68(2), 495-518.
- 서경혜(2013), 교사 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3), 161-191.
- 성경희·박은아(2017), PISA 금융소양 평가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사회과교육*, 56(1), 1-19.
- 오영수(2015), 금융감독원의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평가도구의 적정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22(2), 71-97.
- _____.·곽영일(2015), 대구지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결정 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3(2), 233-251.
- 이윤희(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비교 분석, *경제교육연구*, 22(3), 91-122.

- (2018),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경제교육연구*, 25(3), 61-85.
- 문세영(2020), 금융이해력 자기과신의 추정과 판별, *소비자학연구*, 31(3), 269-295.
- 이태준·김부열·손혜림(2017), 금융소비자 금융이해력 연구: 펀드투자자의 지식보정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8(2), 303-338.
- 장경호·박형준(2018), 금융교육 교사연수 및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금융교육연구*, 3, 23-48.
- _____.한경동·김경모(2008), 사회과 교사의 배경이 경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0(4), 21-41.
- 조지민·임해미·천규승·김경모(2014), PISA 2012 금융이해력 평가와 한국의 금융 관련 학교경제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46(4), 177-205.
- 천규승·김솔(2016).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금융교육연구*, 1, 83-115.
- 최병모·김정호·전희옥(2004), 사회과 경제담당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분석, *시민교육연구*, 36(2), 311-336.
- 최윤정·김예지(2015),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경제교육-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217-245.
- 한국은행(2021), 2021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보도 자료(8. 24.).
- 한진수(2002), 한국의 초등교사는 경제 지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가?, *교육논총*, 1-28.
- _____(2013),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수준과 결정 요인, *경제교육연구*, 20(2), 39-63.
- _____(2016), 연령대별 금융 이해력의 차이, *금융교육연구*, 1, 25-49.
- _____(2017), 왜 학교 금융교육이어야 하는가?, *금융교육연구*, 2, 25-49.
- _____(2021), 예비 초등교사는 개인 금융을 잘 아는가? 경인교대생의 경우, *교육논총*, 41, 89-107.
- Deng, H. T., Chi, L. C., Teng, N. Y., Tang, T. C., and Chen, C. L. (2013), Influence of financial literacy of teachers on financial education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e-Education, e-Business, e-Management and e-Learning*, 3(1), 68.
- Henning, M. B. and Lucey, T. A. (2017),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nd teacher educators' perceptions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The Social Studies*, 108(4), 163-173.

- Hung, A., Parker, A. M., and Yoong, J. (2009), Defining and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 Lusardi, A. (2008), Household saving behavior: The role of financial literacy, information, and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No. w1382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_____. (2015), Financial literacy skills for the 21st century: Evidence from PISA,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9(3), 639-659.
- Mandell, L. (2008). *The financial literacy of young American adults*, The jump\$s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 McCannon, B. C. (2014), Finance education and social preferences: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Finance*, 4, 57-62.
- OECD (2014), PISA 2012 Results: Students and Money: Financial Literacy Skills for the 21st Century(Volume VI), OECD Publishing. Retrieved July, 24, 2016, <http://dx.doi.org/10.1787/9789264208094-en>.
- OECD, INFE (2018), *OECD/INFE Toolkit for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2018-INFE-FinLit-Measurement-Toolkit.pdf>.
- _____. (2020),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oecd-infe-2020-international-survey-of-adult-financial-literacy.pdf>.
- Peng, T. C. M., Bartholomae, S., Fox, J. J. and Cravener, G. (2007), The impact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delivered in high school and college cour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2), 265-284.
- Sasser, S. L., Grimes, P. W. and Franklin, P. W. (2010),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 baseline analysis of teacher knowledge in Oklahoma, *Franklin Business & Law Journal*, 3(5), 68-82.
- Walstad, W. B. and K. Rebeck (2016), *Basic Finance Test: Examiner's Manua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Financial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Dongjin Kim* · Jih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financial litera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s, which is based on the OECD/INFE's survey tool. As a result of analyzing 251 responses from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financial literacy averag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83.07, financial knowledge was 87.19, financial behavior was 88.27, and financial attitude was 67.92, confirming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financial understanding was relatively high. The results of analyzing how the financial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with experience in financial literacy-related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had high financial literacy. Second, the financial literacy of teachers who had experience in teaching financial education was found to be high. Third, it was found that teachers with training experience related to financial literacy had higher financial understanding than those who did no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understanding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discussed.

Key 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s'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behavior, Financial attitude, Financial education

원고접수: 2021년 11월 15일 심사일: 2021년 11월 28일 ~ 2021년 12월 20일
게재확정: 2021년 12월 20일

* First author. Senior Researcher, Data Driven; Lecture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j.kim@datadriven.kr).

** Corresponding author. Teacher, Seoul Daegil Elementary School (kjh4469@snu.ac.kr).